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The Development and Validity of the Children's Playfulness Rating Scale

김명순(Myoung Soon Kim)¹⁾

김길숙(Gil Sook Kim)²⁾

박찬화(Chan Hwa Park)³⁾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develop a Children's Playfulness Rating Scale(CPRS) and to analyze it in terms of item discrimination, validity, and reliability.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consisted of 861 parents whose children were aged from three to six years old. The item discrimination, determined by comparing the highest and lowest group using χ^2 , Cramer's V , was found to be satisfactory. The reliability of factors, as measured by Cronbach's α , ranged from .85 to .95.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identified 4 factors and 35 items were then selected from the 45 items in the original scale. The four factors identified were as follows; (1) leading participation (2) cognitive flexibility (3) expression of joy (4) voluntary full immersion. Concurrent validity was also established by using correlations between the CPRS and CPS(Children's Playfulness Scale). In conclusion, these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Children's Playfulness Rating Scale is both reliable and valid.

Key Words :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the Children's Playfulness Rating Scale), 주도적 참여(leading participation), 인지적 융통성(cognitive flexibility), 즐거움의 표현(expression of joy), 자발적 몰입(voluntary full immersion).

I. 서 론

아동이 놀이하듯하는 모습은 고대 이집트 벽화에

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아이가 줄넘기와 공, 인형을 가지고 노는 그림이 남아있다. 또한 16세기 Bruegel(1560)의 '아이들 놀이(Children's

¹⁾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학과 교수

²⁾ The University of Georgia, Visiting Scholar

³⁾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사

Corresponding Author : Gil Sook Kim,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134 Shinchon-dong, Sudaemun-Gu, Seoul 120-749, Korea
E-mail : kgsqueen72@gmail.com

Play)’란 그림에서도 다양한 놀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Kim, 2008) 그림 속의 많은 놀이들이 현재에도 흔히 즐겨하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아동의 놀이는 동서고금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의 놀이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인간 고유의 특성이라 볼 수 있다. Huizinga(1955)는 생각하는 인간(Homo Sapiens)과 같은 차원으로 ‘호모 루덴스(Homo Ludens)’, 즉 ‘놀이하는 인간’을 주장하면서 인간사회의 중요한 원형적인 행위에는 처음부터 놀이적 요소가 스며들어 있다고 하였다. UN의 아동권리협약 31조에 의하면 놀이는 건강한 어린이가 정열적으로 자유 분방하게 참여하는 몰입행동이며, 어린이의 기본 권리의 하나로 영양, 주거, 건강한 양육 및 교육과 함께 제시되어 있다(UN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 CRC, 1989). 즉 놀이는 아동의 발달과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아동의 발달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Pellegrini & Boyd, 1993). 따라서 놀이에 관한 연구는 놀이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즉 발달변인이나 놀이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그리고 이전까지의 많은 놀이연구는 관찰된 행동과 행위의 빈도를 세는 관찰범주나 관찰척도를 측정도구로 많이 사용하여 왔다. 반면에 최근 많은 연구자들은 놀이행동이나 외부적 놀이환경 뿐 아니라 놀이자의 내적 성향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유아 및 아동의 놀이에 관한 근래의 연구는 성격의 한 특성으로서의 놀이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놀이성은 ‘놀이의 질적 특성을 나타내는 심리적 구인으로서 자아의 발달과 만족을 위해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즐거움을 더하려는 개인의 심리적 활동 경향’(Park & Kim, 2004)이

다. 놀이에서의 개인차는 놀이성, 즉 놀이에 대한 성향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Rogers, Meeks, Impara, & Frary, 1987). Barnett(1991)은 유아의 놀이성을 환경 내에서 그리고 다양한 맥락과 에피소드에서 질적인 놀이적 상호작용을 하게 하는 내적 성향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놀이성은 개인적 특성이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표현되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인지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Erikson(1972)은 놀이성이 어머니와 영아 간의 초기 상호작용에서 이미 나타나며, 아동의 놀이에서, 청소년의 농담이나 장난에서, 그리고 성인의 게임과 취미에서 쉽게 드러난다고 하였다.

어린 유아에게 놀이는 주변 환경과 사람들에 관한 것을 배우고 발견하는 수단이다. 그리고 어머니(또는 주양육자)와 아기 간의 상호작용은 놀이성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일례로 어머니가 아기에게 미소를 짓고 신체적 장난과 이야기를 하면, 이에 아기는 웃음과 킁킁거리는 소리로 반응하게 된다. 이어서 아기에게 장난감이 소개되고, 언어가 발달하기 이전에 놀이를 통해 이들 사이에 ‘게임과 조크(game and joke)’가 발달한다(Youell, 2008). Youell(2008)에 의하면 ‘playful’이란 용어는 즐거움(enjoyment), 재미(fun), 또는 오락(amusement)을 함의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놀이성(playfulness)을 융통성 있게 생각할 수 있고 모험적인 아이디어를 내거나 개인들 간에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창의적 사고가 가능한 마음의 상태라고 하였다. 즉 놀이성은 놀이의 필수적인 한 부분으로 대인관계에서 나타나고, 형식적, 비형식적인 효과적인 교수-학습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유아의 정서적, 심리적, 그리고 인지발달을 고려할 때 유아가 놀이하는 것이 어색하거나 잘 하지 못하는 것은 놀이성의 부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진단

적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Lieberman(1965)은 놀이성 측정도구를 처음으로 개발한 학자로 놀이성은 성격 특성으로서 유아에게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놀이하려는 성향이라고 보았다. 놀이성은 놀이를 하게 하는 잠재적인 힘 또는 성향으로 유아가 놀이상황에 얼마나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즐기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하며 창의력 및 적응력과 관련성 있다. Lieberman(1965)은 유아원(preschool) 교사에게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급의 유아들을 평정하도록 하여 놀이성이 신체적 자발성(physical spontaneity), 사회적 자발성(social spontaneity), 인지적 자발성(cognitive spontaneity), 즐거움의 표현(manifest joy), 유머 감각(sense of humor) 등 5개의 비교적 안정적인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단일 차원의 성격 특성임을 제안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체성 자발성은 놀이를 하는 동안 유아의 신체적 협응력과 운동활동 수준을 의미한다. 사회적 자발성은 놀이하는 동안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질을 뜻하며 타인과 협력하고 공유하고 타인을 이끌고 타인에게 반응하고 주도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적 자발성은 놀이를 하는 동안 다양한 성격의 역할을 가정하고 특별한 게임을 창안하고 비관례적 사물을 사용하는 것 뿐 아니라 유아놀이에서 상상력의 질을 강조한다. 즐거움의 표현은 유아가 놀이 중에 보이는 열중, 기쁨, 즐거움, 자유로움, 독백을 표현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유머감각은 유아가 놀이에서 보이는 특성인 농담하기, 장난기, 익살 보여주기와 타인에게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웃는 것 뿐 아니라 다른 유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포함된다.

Lieberman(1965)은 놀이성의 5개 하위요인을 토대로 놀이성에 관한 10개의 핵심 질문과 유아

의 지능과 유아의 신체적 매력에 관한 2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평정자들은 놀이성을 묻는 질문이 단지 10개일 뿐이고 한 질문에 2개 또는 그 이상의 행동이 연결되어 있는 점, 놀이성 이외의 요인을 묻는 질문이 포함된 점, 그리고 2개의 부가 질문의 영향력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Barnett & Kleiber, 1984).

Truhon(1983)은 30명의 유치원 유아들의 단독 놀이를 관찰한 후 놀이성의 하위범주인 사회적 자발성을 제외하고 10개 항목의 놀이성(신체적 자발성의 양적·질적 측면, 인지적 자발성의 양적·질적 측면, 즐거움의 표현의 양적·질적 측면, 유머감각의 양적·질적 측면, 지능, 신체적 매력)을 측정하여 Lieberman의 놀이성이 단일 성격차원이 아닌 인지적 요소(playfulness-intelligence)와 정의적 요소(playfulness-fun)의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이 때 놀이성의 인지적 요소가 높은 유아는 많은 놀잇감을 빈번히 바꿔가며 노는 경향을 보이며 정의적 요소가 높은 유아는 적은 수의 놀잇감을 가지고 노는 경향을 보였다.

Barnett와 Kleiber(1982, 1984)는 Lieberman(1965)의 놀이성 측정도구를 반복 사용하면서 놀이성의 요인들은 성과 가정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놀이성 척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을 발견하였다. Barnett(1990)은 Lieberman의 도구를 수정하고 향상시키려는 시도를 함으로써 5개 요인을 보존하고 23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의 ‘아동용 놀이성 척도(Children’s Playfulness Scale : CPS)’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두 명의 전문가 패널로부터 안면 타당도와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였고, 두 명의 교사가 388명의 유아원 아동을 평정한 결과, 평정자간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검사 신뢰도와 내적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요인들 간의 상관 또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Barnett(1990)의 도구가 신뢰할만하다 할지라도 Lieberman으로부터 빌려온 놀이성의 정의가 놀이성 구인을 적절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실제로 성격적 성향보다 놀이 행동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단점이 제기 되었다(Rogers, Impara, Frary, Harris, Meeks, Semanic-Lauth, & Reynolds, 1998).

또 다른 놀이성 도구로는 놀이성을 심리적 구인으로서 놀이하는 개인적 성향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 Rogers, Meeks, Impara와 Frary(1987)의 ‘아동 놀이성 측정도구(The Child Behaviors Inventory of Playfulness)’가 있다. Rogers 외(1987)는 Rubin, Fein과 Vedernberg(1983)가 주장한 놀이의 6가지 성향인 내적동기, 과정지향, 유기체 주도, 비사실성, 외적으로 부과된 규칙으로부터 자유, 적극적 참여 등에 기초하여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놀이성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5점 척도이며 놀이성 요소 20개 문항과 외부성(externality)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외부성(externality)은 환경 내에서 물건을 융통성 없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시를 받고 자 하는 의존성과 같은 환경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를 말한다. 이후 Rogers 외(1998)는 ‘아동 놀이성 측정도구(The Child Behaviors Inventory of Playfulness)’를 더욱 발전시켰는데 놀이 분야의 16명의 학자의 안면 타당도를 거치고 467명 아동의 어머니들의 평정을 거쳐 놀이성 21개 문항과 외부성(externality) 7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보완된 놀이성 척도를 제시하였다. 유아원 재원 유아부터 초등 4학년까지 아동 892명의 부모와 교사들이 이 척도로 유아 및 아동들을 평정한 결과, 놀이성의 내적 합치도가 .81 ~ .94로 나타났으며 외부성(externality)은 .62 ~ .72로 놀이성 요소가 보다 높게 나타났다.

Bundy(1993)는 놀이의 질은 놀이성에 의해 결

정되며, 놀이성이 장애를 가진 유아의 적응력에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이러한 놀이성과 적응력 간의 관련성으로 인해 놀이치료자들이 놀이성 증재에 집중적 관심을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놀이성의 증진을 위한 증재를 계획할 때 필요한 정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놀이성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Bundy(1997)는 관찰에 기초한 ‘놀이다움 평정척도(Test of Playfulness; ToP)’라는 놀이성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는데 이 도구는 놀이 맥락에서 유아 및 아동의 교류(transaction)를 반영하여 놀이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놀이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개발되었다. 기본 구성요소로는 내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와 내적 통제(internal control), 현실감을 벗어난 자유로움(suspension of reality)에 Bateson(1972)에 의해 논의된 참조체계(framing)라 불리는 4번째 요소를 포함하였다. 참조체계는 사회적 신호를 주고받는 것에 의해 놀이를 구성하는 것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능력은 놀이와 다른 상황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요소이다. 평정 내용은 관찰시간 동안 행동의 출현정도를 보는 시간 비율, 놀이활동의 집중도를 보는 강도, 활동의 숙련도이며 4점 척도로 평정되었다. Bundy와 Clifton(1998)은 Barnett(1991)의 ‘아동용 놀이성 척도(Children’s Playfulness Scale : CPS)’는 Lieberman에 의해 설명된 놀이성의 5개 영역이 그대로 유지되고 타당도가 증명되었으나 CPS의 문항타당도와 개인의 반응타당도는 장애를 가진 유아 및 아동 특히 운동영역에서 자발성이 부족한 아동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CPS는 정상발달을 보이는 유아 및 아동보다 장애아에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Bundy, Nelson, Metzger와 Bingaman(2001)은 Rash 분석을 통한 문항반응 타당도, 개인반응 타당도, 신뢰도, 공

인타당도를 측정하여 ‘놀이다움 평정척도(ToP)’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 놀이성을 평가하기 위한 타당하고 신뢰로운 도구임을 입증하였다.

최근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놀이성 연구는 주로 Barnett(1991)의 ‘아동용 놀이성 척도(CPS)’를 번안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Barnett(1991)은 유아의 놀이성 평정을 교사가 유아를 관찰한 후 하도록 하였으나 CPS를 사용한 국내 연구에서 평정자는 교사, 부모, 또는 관찰자였다. 즉 평정자가 교사인 경우(Jang & Cho, 2006; Lee, 2010; Lee, Lim, & Oh, 2006; Lim & Ahn, 2008; Woo, 2008; Yoo, 1994; Yu, 2006)와 CPS를 부모용으로 수정하여 부모가 평정한 경우(Choi & Kim, 2006; Kim & Kim, 2006) 그리고 놀이상황을 관찰한 후 연구자가 CPS를 사용하여 평정한 경우(Im, Cha, & Yoon, 2003)로 나뉘어진다. 이렇듯 국내에서 유아의 놀이성을 측정하기 위해 Barnett(1991)의 ‘아동용 놀이성 척도(Children’s Playfulness Scale : CPS)’가 주로 사용되어 왔지만 타당화 작업 없이 번안만 하여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우리나라 유아의 놀이성을 측정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 국내에서 유아의 놀이성 연구에 사용된 또 다른 놀이성 척도로는 Bundy(2003)가 제작한 ‘놀이다움 평정척도(Test of Playfulness : ToP) 4.0’이 있다. Jin(2003)은 우리나라 일반 유아 및 아동과 장애 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ToP을 예비표준화 하였고, Jin과 Lee(2009)는 최근 다문화 가정 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타당화를 하였다. Bundy(2003)의 ‘놀이다움 평정척도(ToP 4.0)’는 정도, 강도, 기술 등 3가지 측면에서 평가가 실시되어 유아의 놀이성 측정 시 다양한 면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이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국내의 놀이성 연구는 외국의 척도를 그대로 번안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국내 유아를 대상으로 개발된 놀이성 측정도구는 아직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유아용 놀이성 측정 도구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유아를 대상으로 한 놀이성 관련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놀이성 측정도구는 오히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로 Choi, Choi와 Cho(2008), Park과 Lee(2008)의 놀이성 측정도구가 그 예이다. Park과 Lee(2008)는 기존의 놀이성 관련 척도와 문항의 내용을 참고로 하고 연구자가 새로운 문항을 추가하여 5점 척도의 아동의 놀이성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사회적 적극성, 유머 감각, 탐구심의 3요인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실제 자료를 경험적으로 추출하기보다 기존의 이론적 자료를 토대로 문항을 구성했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생생한 놀이성에 대한 문항을 추출해 낼 수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Choi, et al., 2008).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Choi 외(2008)는 Kim(2003)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초등학생의 지각을 바탕으로 하는 놀이성 문항을 추출하여 6개 요인, 63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의 놀이성 척도를 개발하였다. 6개 요인은 유머감각, 정서적 놀이성, 기발성, 사회적 놀이성, 독자적 놀이성과 탐닉으로 구성되었다.

Youell(2008)이 놀이성은 2명의 대인간의 현상으로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고 한 바와 같이 각 개인이 놀이적인 탐색을 하는 능력은 초기에 그를 돌보는 성인과 어떠한 놀이적 상호작용을 경험하느냐에 달려 있다. 여러 연구결과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아의 놀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로 부모와 자녀 간

의 상호작용을 들 수 있다. 유아는 출생 이후 부모와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놀이의 기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영아 간에 놀이에서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영아의 놀이 발달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은 (Bornstein, Haynes, O'Reilly, & Painter, 1996; Damast, Tamis-LeMonda, & Bornstein, 1996; Fiese, 1990; Kim & Sung, 2002) 놀이발달에서의 부모의 영향을 입증하는 것이다. 어머니는 자녀의 놀이 능력에 민감해서 자녀의 연령에 따라 행동을 변화시킨다. 즉 자녀의 발달능력에 관한 어머니의 지식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동안 어머니가 보이는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Damast 외(1996)는 어머니의 놀이 지식과 놀이 행동이 어머니-유아의 실제 놀이 유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어머니들은 자녀의 놀이발달에 관해 비교적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지식이 많은 어머니일수록 자녀에게 더 높은 수준의 놀이를 제공함으로써 자녀의 놀이에 더 자주 반응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가 유아의 놀이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놀이성 연구에서는 대부분 교사가 유아의 놀이를 보고 평정하거나 관찰자가 얼마간의 시간 동안 관찰 후 측정하였으며 동일한 도구를 부모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실제로 유아와 오랜 시간 상호작용을 하면서 놀이하고 유아의 놀이를 관찰한 어머니의 입장에서 유아의 놀이성을 측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국내의 유아놀이 관련 연구에서도 제기되어 왔으며(Lim & Ahn, 2008) 따라서 유아의 놀이를 잘 아는 어머니가 자녀의 놀이성을 쉽게 평정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놀이성은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우

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며(Erikson, 1977), 여러 발달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구인이다. 이러한 놀이성은 부모와 초기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 부모의 놀이에 대한 관점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유아의 놀이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이나 표현방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만 3세부터 만 6세까지의 유아의 놀이성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고 놀이성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면서 유아와 놀이적 상호작용을 가장 많이 하는 어머니가 평정하는 놀이성 척도를 개발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 유아의 놀이성과 다양한 변인과의 관계를 밝혀 놀이 관련 중재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놀이성 평정 척도의 문항 변별도는 어떠한가?
2. 유아의 놀이성 평정 척도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3. 유아의 놀이성 평정 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만 3세에서 만 6세에 해당하는 유아 861명이었다.

<Table 1> Percent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3~6 years according to age and gender (N= 861)

	3yrs.(n=260)		4yrs.(n=250)		5yrs.(n=248)		6yrs.(n=103)	
	Boys	Girls	Boys	Girls	Boys	Girls	Boys	Girls
Frequency	108	152	110	140	112	136	48	55
(%)	(12.5)	(17.7)	(12.8)	(16.3)	(13.0)	(15.8)	(5.6)	(6.4)
Mean*	41.3	40.9	53.5	52.9	64.5	64.9	75.4	76.2
(SD)	(3.47)	(3.38)	(3.10)	(3.24)	(3.36)	(3.24)	(2.87)	(3.18)
Total	41.1(3.41)		53.2(3.19)		64.7(3.29)		75.8(3.05)	

주 : * 개월 수를 의미함

Note : * Means month.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mothers (N= 861)

	Seoul(n=367)		Gyunggido(n=404)		Incheon(n=90)		
	Father frequency (%)	Mother frequency (%)	Father frequency (%)	Mother frequency (%)	Father frequency (%)	Mother frequency (%)	
Age	20~29yrs.	3(0.8)	21(5.7)	8(2.0)	20(5.0)	1(1.1)	5(5.6)
	30~39yrs.	295(80.4)	330(89.9)	336(83.2)	371(91.8)	66(73.3)	75(83.3)
	40~49yrs.	67(18.3)	16(4.4)	60(14.9)	13(3.2)	22(24.4)	9(10.0)
	Over 49yrs.	2(0.5)	-	-	-	1(1.1)	1(1.1)
Education	Below high school graduate	49(13.4)	63(17.2)	61(5.7)	79(19.6)	20(22.2)	25(27.8)
	Vocational college graduate	52(14.2)	82(22.3)	74(18.3)	106(26.2)	23(25.6)	25(27.8)
	University graduate	200(54.5)	179(48.8)	209(51.7)	194(48.0)	38(42.2)	34(37.8)
	Graduate school or above	66(18.0)	43(11.7)	53(13.1)	25(6.2)	9(10.0)	6(6.7)
Monthly-income (won)	Below 1,000,000	2(0.5)	-	-	-	-	-
	1,000,000~ below 2,000,000	21(5.7)	-	32(7.9)	-	7(7.8)	-
	2,000,000~ below 3,000,000	87(23.7)	-	108(26.7)	-	28(31.1)	-
	3,000,000~ below 4,000,000	76(20.7)	-	129(31.9)	-	24(26.7)	-
	4,000,000~ below 5,000,000	79(21.5)	-	70(17.3)	-	8(8.9)	-
	Over 5,000,000	102(27.8)	-	65(16.1)	-	23(25.6)	-

대상 표집은 B유아전문교육기업¹⁾의 웹회원 861명의 응답자가 응답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인 만 3~6세 유아의 연령별, 성별에 따른 수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는 Table 1과 같으며 설문에 응답한 부모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부모의 월수입과 지역에 따른 유아의 놀이성에 차이가 있는지 일원 변량 분석한 결과, 부모의 월수입과 지역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연구 도구

1)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는 Lieberman(1977)이 제시한 놀이성 개념(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 감각), Rubin 외(1983)가 제시한 놀이성향의 6가지 준거(내적동기, 과정지향, 유기체 주도, 비사실성, 외적으로 부과된 규칙으로부터 자유, 적극적 참여)와 놀이성을 다양한 놀이행동을 일으키는 성향이라고 정의한 Rogers 외(1998)의 놀이성 개념을 기초로 하였다. 더불어 여러 선행연구(Barnett, 1990, 1991; Bundy, 1997; Glynn & Webster, 1992; Schaefer & Greenberg, 1997; Singer & Rummo, 1973; Truhon, 1983)에서 놀이성을 구성하는 하위요인들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본 연구인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 개발에 반영하였다. 즉 하위 요인으로 ‘주도적 참여’, ‘인지적 융통성’, ‘즐거움의 표현’, ‘자발적 몰입’이라는 4개의 요인을 도출한 후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놀이성 평가척도의 문항들을 분석하여 공통 항목들을 찾았으며 선행 연구와 현장 전문가들이 제안한 놀이성과 관련

된 유아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항목들을 첨가하였다.

본 연구의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는 설문지 형식으로 부모의 인구학적 정보를 묻는 문항과 유아의 놀이성을 묻는 4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어머니 또는 주양육자는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문항별 점수의 범위는 1~5점이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45~22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놀이성 성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의 구체적인 문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준거 도구

본 도구의 준거 관련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Barnett(1990, 1991)의 ‘Children’s Playfulness Scale; CPS’를 Yu(1994)가 변안한 것을 준거도구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놀이성의 하위 범주로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 감각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정말 그렇다’의 5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점의 범위는 23점에서 1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 변인의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연구 절차

1) 예비 조사

본 조사에 앞서 문항 이해의 적절성 및 소요 시간 등을 알아보기 위해, 2010년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만 3세부터 만 6세의 유아를 둔 어머니 17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문항 이해에 별다른 어려움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10~15분 정도였다.

1) (주)베네체 코리아

문항	내용
1	역할이나 모습을 꾸며서 행동한다.
2	다양한 방법으로 사물을 가지고 놀이한다.
3	하나의 놀이에서 다른 놀이로 확장한다.
4	놀이를 더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한다.
5	놀이 시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놀고자 한다.
6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다른 친구, 성인)을 놀이에 참여시킨다.
7	놀이를 할 때 하나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여러 다른 역할도 함께 한다.
8	여러 다른 놀이감을 이용하여 새로운 놀이감을 만든다.
9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한다.
10	무엇을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한다.
11	놀이를 할 때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놀이감을 사용한다.
12	활동을 지속하기 위하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13	순조롭고 융통성있게 놀이한다.
14	놀이 중 놀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어내며 놀이한다.
15	놀이를 계획한다.
16	놀이에 열중한다.
17	같은 놀이감을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한다.
18	필요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른 유아와 협상할 수 있다.
19	놀이를 위해 놀이감을 충분히 탐색한다.
20	놀이하는 동안 선택한 과제를 완수하고자 한다.
21	다른 유아와 함께하는 놀이에 참여한다.
22	다른 유아의 놀이를 도와준다.
23	이미 활동을 시작한 놀이 집단에 합류할 수 있다.
24	놀이 시 다른 유아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
25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놀이 상대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표정, 언어, 몸짓 등을 통해 단서를 준다.
26	놀이 결과보다 오히려 놀이 과정을 즐긴다.
27	놀이 시 재미있는 말이나 농담을 한다.
28	다른 유아의 표정, 언어, 몸짓 등에 반응한다.
29	다른 유아에게 함께 놀자고 말할 수 있다.
30	다른 유아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준다.
31	놀이하는 동안 다른 유아의 말을 경청한다.
32	소외된 다른 유아를 놀이에 참여시킨다.
33	다른 아이들과 놀이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34	놀이하는 동안 다른 유아의 참여를 수용한다.
35	놀이 시 다른 유아와 놀이감 및 기구를 공유할 수 있다.
36	놀이하는 동안 자기의 감정을 적절한 언어로 표현한다.
37	다른 유아들이 함께 놀고 싶어 한다.
38	놀이하는 동안 즐거워한다.
39	놀이를 하면서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이야기한다.
40	놀이를 하면서 미소를 짓거나 소리내어 웃는다.
41	놀이 규칙을 만들어서 다른 유아에게 제시한다.
42	다른 유아와 규칙을 지키면서 놀이한다.
43	놀이하는 동안 만족스러워한다.
44	놀이 활동 중 자신이 만든 결과물을 자랑한다.
45	장난스러운 놀이를 즐긴다.

2) 본 조사
 2010년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B유아전
 문교육기업 웹회원 중, 만 3~6세 자녀를 둔 서

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부모 343,672명을 대
 상으로 설문지 작성에 동의를 요하는 메일을 발
 송하였다. 초기 표집수는 성별, 연령별 각 125명

씩 1,000명의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었으나 수신에 동의한 회원 143,925명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최종적으로 질문지에 응답한 861명의 응답자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 문제 1, 2, 3의 분석을 위해 SPSS 17.0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 문제 1의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의 문항 변별도를 알아보기 위해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의 총점을 기준으로 상·하위 각 25.6%에 속하는 대상을 추출하여 상, 하 집단으로 이등분하고 상, 하 집단 간의 문항반응의 카이제곱(χ^2)과 Cramer's V 값을 산출하였다. 연구 문제 2의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내용 타당도와 구인 타당도 및 공인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의 구인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 분석과 하위 요인간의 상호상관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공인 타당도를 구하기 위해 Barnett(1991)의 'Children's Playfulness Scale(CPS)'의 총점과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의 총점간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 문제 3의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의 문항 변별도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의 각 문항이 놀이성

<Table 3> The item discrimination of the Children's Playfulness Rating Scale

	χ^2	Cramer's V		χ^2	Cramer's V		χ^2	Cramer's V
1	160.03***	.60***	16	205.35***	.68***	31	200.32***	.67***
2	207.38***	.69***	17	216.89***	.70***	32	141.64***	.57***
3	230.70***	.72***	18	235.38***	.73***	33	217.88***	.70***
4	246.41***	.75***	19	234.02***	.73***	34	222.69***	.71***
5	162.96***	.61***	20	213.86***	.70***	35	207.11***	.69***
6	227.84***	.72***	21	256.60***	.76***	36	242.61***	.74***
7	207.48***	.69***	22	238.76***	.74***	37	203.61***	.68***
8	238.24***	.74***	23	224.13***	.71***	38	219.14***	.71***
9	255.70***	.76***	24	249.70***	.75***	39	214.91***	.70***
10	222.44***	.71***	25	269.19***	.78***	40	229.36***	.72***
11	215.15***	.70***	26	178.33***	.64***	41	240.11***	.74***
12	251.18***	.76***	27	237.13***	.73***	42	229.19***	.72***
13	240.94***	.74***	28	232.40***	.73***	43	218.66***	.70***
14	235.21***	.73***	29	212.22***	.69***	44	232.87***	.73***
15	247.14***	.75***	30	209.19***	.69***	45	146.08***	.58***

*** $p < .001$.

이 높은 유아와 낮은 유아의 구별을 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 하 집단 간의 문항반응의 카이제곱(χ^2)과 Cramer's V 값을 산출하였다(Table 3 참조). Table 3에 의하면 문항 변별도 분석에서 모든 문항이 유아의 놀이성 차이를 잘 변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의 타당도

1) 내용 타당도

유아용 놀이성 평정척도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유아교육과 교수 1명, 아동학과 교수 1명, 아동학 전공 박사 2명, 유아교육 전문가 3명에게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전문가들은 문항 내용 전달의 명확성, 각 문항이 연구자의 가설에 따른 요인들에 잘 부합하는지 여부, 추가할 문항 여부 등을 중점으로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모호한 문항을 좀 더 명확하게 기술하였다(예: '놀이 시 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 '놀이를 할 때 하나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여러 다른 역할도 함께 한다.', '활동을 지속하기 위하여 장애 혹은 장벽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한다.' -> '활동을 지속하기 위하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놀이성과 관련된 유아의 특성을 반영하는 항목들을 추가하였다(예: '놀이 결과보다 오히려 놀이 과정을 즐긴다', '놀이 활동 중 자신이 만든 결과물을 자랑한다.').

2) 요인 분석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 개발을 위해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자료임을 판단하기 위하여 KMO(Kaiser-Meyer-Olkin)와 Bartlet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KMO값은 .963으로 매우 좋게 나타났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결과도 유의확률이 .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이 확인되었다.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의 45개 문항이 어떠한 요인으로 구성되었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ing)을 사용하였고 요인의 회전에 있어서는 Kaiser의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Varimax) 방법을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 EFA) 과정에서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이 0.4이하인 문항과 여러 요인에 걸쳐진 문항을 삭제하였다. 삭제된 문항은 문항 8, 문항 16, 문항 17, 문항 19, 문항 20, 문항 26, 문항 27, 문항 28, 문항 36, 문항 37로 총 10문항이었다. 선행 연구와 스크리 도표, 요인 수에 따른 고유치 감소 정도 및 요인이 설명하는 분산 비율의 증가 정도, 최종 요인행렬표에 의한 해석의 합리성을 기준으로 4개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에 4개의 요인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CFA)을 실시하였으며 4개 요인의 회전 후 요인행렬표는 Table 4와 같다.

4개의 요인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CFA)을 실시한 결과, 4개의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58.19%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인 1은 전체 변량의 41.97%를 설명해 주며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1은 문항 18, 문항 21, 문항 22, 문항 23, 문항 24, 문항 25, 문항 29, 문항 30, 문항 31, 문항 32, 문항 33, 문항 34, 문항 35, 문항 41, 문항 42이었다. 놀이 시 또래와의 협력정도, 나누기, 접촉, 또래 수용 정도, 상호작용 등의 주도성에 관한 문항들로 요인명을 '주도적 참여'라고 하였다. 요인 2는 전체 변량의 7.91%를 설명해 주며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2는 문항 1, 문항 2, 문항 3, 문항 4, 문항 5, 문항 6, 문항

<Table 4> Factor analysis for the items of Children's Playfulness Rating Scale (N = 861)

Name of factor	Items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Leading participation	30 Helps to resolve conflicts between other children during play	0.759	0.144	0.023	0.214
	32 Includes other children who are left out in play	0.757	0.121	0.091	0.092
	31 Listens to other children during play	0.733	0.187	0.067	0.064
	34 Accepts other children's participation in play	0.700	0.179	0.244	0.086
	35 Shares playthings/toys with other children during play	0.691	0.188	0.253	0.022
	22 Helps to play other children's games	0.690	0.149	0.267	0.184
	24 Shares thoughts with other children during play	0.688	0.146	0.212	0.246
	21 Participates in play with other children	0.654	0.145	0.308	0.222
	42 Follows the rules during play with other children	0.649	0.259	0.351	-0.038
	23 Can join play groups that already started playing group activities	0.618	0.096	0.167	0.398
	18 Can negotiate with other children to fulfill his or her own needs or wants	0.611	0.185	0.211	0.289
	33 Takes on a leading role when playing with other children	0.575	0.139	0.109	0.388
	29 Can ask other children to play together	0.570	0.113	0.233	0.296
	41 Creates play rules and suggests them to other children	0.558	0.257	0.356	0.096
	25 Gives hints using "expression on one's face language, body language, etc. to help other children understand what he or she wants	0.535	0.241	0.285	0.282
Cognitive flexibility	2 Plays with an object in a variety of ways	0.143	0.744	0.199	0.232
	1 Role plays or dresses up	0.158	0.714	0.165	-0.048
	3 Expands one play activity into another	0.155	0.678	0.213	0.334
	4 Tries to make the play activities more interesting and fun	0.197	0.657	0.251	0.322
	7 Plays multiple roles at the same time during play	0.286	0.637	0.101	0.127
	5 Tries to play the way he or she intended to	0.079	0.529	0.293	0.279
	14 Invents stories related to play	0.230	0.511	0.347	0.268
	15 Plans play activities	0.341	0.496	0.200	0.326
6 Includes others (friends, adults, etc.) in play using a variety of ways	0.353	0.488	0.198	0.300	

<Table 4> Continued

Name of factor	Items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Expression of joy	40 Smiles or laughs loudly during play	0.213	0.258	0.792	0.090
	39 Hums a song or talks during play	0.147	0.285	0.751	0.112
	44 Shows off his or her end product during play	0.204	0.237	0.746	0.169
	38 Is happy during play	0.222	0.261	0.728	0.159
	43 Feels satisfied during play	0.366	0.252	0.654	0.122
	45 Enjoys playing pranks	0.142	0.032	0.527	0.332
Voluntary full immersion	11 Is not constrained by the rules of the game and uses toys freely	0.161	0.378	0.198	0.641
	9 Actively participates in group activities	0.302	0.253	0.316	0.634
	10 Chooses what to do by himself or herself	0.183	0.313	0.298	0.627
	12 Tries to solve difficult problems to continue to keep playing activities	0.354	0.297	0.013	0.615
	13 Plays smoothly and demonstrates flexibility (not hard headed, not stubborn)	0.412	0.313	0.146	0.508
	Eigenvalue	14.69	2.77	1.78	1.13
	Pct of Var(%)	41.97	7.91	5.08	3.23
	Cum Pct(%)	41.97	49.88	54.96	58.19

7, 문항 14, 문항 15로 놀이 시 유아의 융통성, 독창성, 문제해결력 등의 인지적 과정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인지적 융통성’이라고 요인명을 정하였다. 요인 3은 전체 변량의 5.08%를 설명해 주며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 38, 문항 39, 문항 40, 문항 43, 문항 44, 문항 45로 놀이 시 기쁨, 즐거움, 성취에 대한 만족감, 미소 등 긍정적인 정서를 다루는 문항들로 요인명을 ‘즐거움의 표현’이라고 하였다. 요인 4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변량의 3.23%를 설명해 주었다. 요인 4는 문항 9, 문항 10, 문항 11, 문항 12, 문항 13으로 놀이 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특성을 다루고 있으므로 ‘자발적 몰입’이라고 명명하였다.

3)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의 총점 및 하위 요인 간 상호상관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의 각 요인이 하나의 구인으로 묶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요인과 놀이성 총점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의 총점과 하위 요인 간 상호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 의하면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의 총점과 각 요인 간의 상호상관 계수는 ‘주도적 참여’가 $r = .91(p < .01)$, ‘인지적 융통성’이 $r = .86(p < .01)$, ‘즐거움의 표현’이 $r = .78(p < .01)$, ‘자발적 몰입’이 $r = .83(p < .01)$ 으로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의 놀이성’이라는 하나의 구인으로 묶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Table 5> Correlations of playfulness total scores with playfulness factors and cross correlations of playfulness factors (N = 861)

	Leading participation	Cognitive flexibility	Expression of joy	Voluntary full immersion	Total score
Leading participation	-	.63**	.59**	.67**	.91**
Cognitive flexibility		-	.64**	.73**	.86**
Expression of joy			-	.56**	.78**
Voluntary full immersion				-	.83**
Total score					-

**p < .01.

또한 각 요인 간 상호상관 계수를 살펴보면 ‘주도적 참여’와 ‘인지적 융통성’은 $r = .63(p < .01)$, ‘주도적 참여’와 ‘즐거움의 표현’은 $r = .59(p < .01)$, ‘주도적 참여’와 ‘자발적 몰입’은 $r = .67(p < .01)$ 로 나타났다. ‘인지적 융통성’과 ‘즐거움의 표현’은 $r = .64(p < .01)$, ‘인지적 융통성’과 ‘자발적 몰입’은 $r = .73(p < .01)$ 으로 나타났다. ‘즐거움의 표현’과 ‘자발적 몰입’과의 상관계수가 $r = .56(p < .01)$ 으로 나타나 유아용 놀이성 평정척도의 하위 요인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요인 분석을 통해 4개의 요인별 문항들을 확인하고 각 요인별로 적합한 요인명을 부여한 후 유아용 놀이성 평정척도의 총점

및 하위 요인 간 상호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총 4개의 요인과 3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최종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4) 공인 타당도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의 공인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의 총점과 준거 척도인 Barnett(1990, 1991)의 ‘Children’s Playfulness Scale(CPS)’의 총점 및 각 하위 요인 간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의 총점과 Barnett (1990, 1991)의 ‘Children’s Playfulness Scale (CPS)’의 총점 간 적률상관계수는 $.85(p < .01)$ 로 상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용

<Table 6> Correlation the Children’s Playfulness Rating Scale and CPS (N = 861)

CPRS	CPS	Barnett(1990, 1991)의 ‘Children’s Playfulness Scale, CPS’					
		Physical spontaneity	Social spontaneity	Cognitive spontaneity	Manifest joy	Sense of humor	Total score
Leading participation		.55**	.84**	.67**	.61**	.59**	.74**
Cognitive flexibility		.57**	.57**	.71**	.69**	.61**	.71**
Expression of joy		.69**	.57**	.64**	.81**	.69**	.77**
Voluntary full immersion		.56**	.60**	.67**	.64**	.57**	.69**
Total score		.67**	.80**	.78**	.77**	.70**	.85**

**p < .01.

놀이성 평정 척도의 총점과 Barnett(1990, 1991)의 ‘Children’s Playfulness Scale(CPS)’의 하위 영역 간의 상관계수는 ‘신체적 자발성’이 .67($p < .01$), ‘사회적 자발성’이 .80($p < .01$), ‘인지적 자발성’이 .78($p < .01$), ‘즐거움의 표현’이 .77($p < .01$), ‘유머 감각’이 .70($p < .01$)으로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Barnett(1990, 1991)의 ‘Children’s Playfulness Scale(CPS)’의 하위영역과 본 연구의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의 하위 요인 간에는 .55($p < .01$)이상의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념적으로 관련이 높은 하위 범주 간의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의 ‘주도적 참여’와 CPS의 ‘사회적 자발성’ 간에 .84($p < .01$)의 상관을 보여 ‘신체적 자발성’ .55($p < .01$), ‘인지적 자발성’ .67($p < .01$), ‘즐거움의 표현’ .61($p < .01$), ‘유머 감각’ .59($p < .01$) 간의 상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융통성’과 CPS의 ‘인지적 자발성’과의 상관은 .71($p < .01$)로 다른 하위 범주보다 높았으며 ‘즐거움의 표현’과 CPS의 ‘즐거움의 표현’ 간의 상관은 .81($p < .01$)로 가장 상관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발적 몰입’과 CPS의 ‘인지적 자발성’ 간의 상관이 .67($p < .01$)로 ‘신체적 자발성’ .56($p < .01$), ‘사회적 자발성’ .60($p < .01$), ‘즐거움의 표현’ .64($p < .01$), ‘유머 감각’ .57($p < .01$)보다 높았다.

3.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의 신뢰도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의 4가지 요인 및 각 요인별 문항수와 내적 합치도 계수는 Table 7과 같다.

Table 7에 의하면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6으로 문항 간의 내적 일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요인 1이 .94, 요인 2가 .89, 요인 3이 .88, 요인 4가 .85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이 높았다.

IV. 논의 및 결론

최근 유아의 놀이에 관한 연구에서 유아의 외현적 놀이행동보다 내적 성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놀이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대부분 외국에서 사용된 도구들을 타당화 과정 없이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놀이성에 대해 연구한 여러 학자(Barnett, 1990, 1991; Bundy, 1997; Glynn & Webster, 1992; Lieberman, 1977; Rogers, et al., 1998; Rubin, et al., 1983; Schaefer & Greenberg, 1997; Singer & Rummo, 1973; Truhon, 1983)들의 놀이성 개념을 기초로 중복되는 개념을 통합하고, 유아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놀이성 측정도구의 단점을 보완하며 놀

<Table 7>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Factor	Item	Cronbach's α
Factor 1(Leading participation)	15	.94
Factor 2(Cognitive flexibility)	9	.89
Factor 3(Expression of joy)	6	.88
Factor 4(Voluntary full immersion)	5	.85
CPRS	35	.96

이의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를 개발하였다.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의 개발은 유아의 놀이성을 평정하는 유용한 도구로 쓰일 것이며 놀이성 연구를 더욱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유아를 대상으로 개발한 놀이성 평정 척도의 문항변별도,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의 문항 변별도 분석을 한 결과, 모든 문항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각 문항이 놀이성의 질 차이를 잘 변별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초기 문항 작성 시 여러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놀이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였고 그 후 문항에 대한 다수의 아동 및 유아교육 전문가들로부터의 피드백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 진다. 한편 질문지는 대규모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고 신념 및 내적인 심리적 구인 측정 시 정확한 자료 수집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위에서 제기된 질문지의 단점을 최소화하고자 유아의 놀이성에 대한 심리적 구인을 측정가능하고 관찰이 용이한 행동적 용어로 문항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이 문항 작성 시 고려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자료수집이 가능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가 타당한 도구임을 입증하기 위해 내용 타당도, 요인분석, 본 척도의 총점 및 하위 요인 간 상호상관, 공인 타당도를 살펴보았다.

내용 타당도는 유아교육 및 아동학 전공 교수와 유아교육 전문가 총 7명에게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의 내용, 질문방식 및 놀이성과 관련된 유아의 특성을 반영하는 항목들을 검증받았다. 이는 우리나라 유아의 놀이성을 측정하는 데 있

어 좀 더 현실적으로 타당한 문항들을 추가함으로써 문화적 맥락에 따른 유아의 놀이성을 반영하기 위함이었다.

처음에 개발된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의 45개 문항이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요인분석을 한 결과, 35개 문항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4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58.19%이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인 1은 전체 변량의 41.97%를 설명해 주며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놀이 시 또래와의 협력정도, 나누기, 접촉, 또래 수용 정도, 상호작용 등의 주도성에 관한 문항들로 요인명을 ‘주도적 참여’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전체 변량의 7.91%를 설명해 주며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2는 놀이 시 유아의 융통성, 독창성, 문제해결력 등의 인지적 과정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인지적 융통성’이라고 요인명을 정하였다. 요인 3은 전체 변량의 5.08%를 설명해 주며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놀이 시 기쁨, 즐거움, 성취에 대한 만족감, 미소 등 긍정적인 정서를 다루는 문항들로 요인명을 ‘즐거움의 표현’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변량의 3.23%를 설명해 주었다. 요인 4는 놀이 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특성을 다루고 있으므로 ‘자발적 몰입’이라고 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척도가 선행 연구(Barnett, 1990, 1991; Bundy, 1997; Lieberman, 1977; Glynn & Webster, 1992; Schaefer & Greenberg, 1997; Lieberman, 1977; Singer & Rummo, 1973; Truhon, 1983)에서 거론되었던 놀이성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인 사회성, 인지성, 창의성, 정서성 등이 잘 반영되었음을 입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의 각 요인이 하나의 구인으로 묶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요인과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의 총점

과의 상호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의 총점과 각 요인 간의 상관 계수는 ‘주도적 참여’가 $r = .91(p < .01)$, ‘인지적 융통성’이 $r = .86(p < .01)$, ‘즐거움의 표현’이 $r = .78(p < .01)$, ‘자발적 몰입’이 $r = .83(p < .01)$ 으로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의 하위 요인 간 상호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하위 요인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의 하위 영역들이 ‘유아의 놀이성’이라는 하나의 구인을 측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의 공인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의 총점과 준거 척도인 Barnett(1990, 1991)의 ‘Children’s Playfulness Scale(CPS)’의 총점 및 각 하위 요인 간 상호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두 척도의 총점 간에는 $.85(p < .01)$ 로 상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 요인 간에도 $.55(p < .01)$ 이상의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의 공인타당도가 입증되었다. 특히 이론적으로 관련된 하위 요인간의 상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의 ‘주도적 참여’과 CPS의 ‘사회적 자발성’ 간에 $.84(p < .01)$ 의 상관을 보여 다른 하위 요인들 간의 상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융통성’과 CPS의 ‘인지적 자발성’과의 상관은 $.71(p < .01)$ 로 다른 하위 요인들 간의 상관보다 높았으며 ‘즐거움의 표현’과 CPS의 ‘즐거움의 표현’ 간의 상관은 $.81(p < .01)$, ‘자발적 몰입’과 CPS의 ‘인지적 자발성’ 간의 상관도 $.67(p < .01)$ 로 다른 요인들 간의 상관에 비해 높았다. 이렇듯 개념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영역 간의 상관계수가 더 높은 것은 수렴 타당도의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본 결과, 전체 문항(35문항)에 대한 것과 4개의 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요인 1인 ‘주도적 참여’은 $.94$, 요인 2인 ‘인지적 융통성’은 $.89$, 요인 3인 ‘즐거움의 표현’은 $.88$, 요인 4인 ‘자발적 몰입’은 $.85$ 이었으며 모두 $.85$ 이상으로 높았다. 또한 35개 전체 문항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는 $.96$ 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는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될 수 있는 매우 신뢰로운 도구임이 입증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유아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유아의 놀이성향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어머니가 평정하는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는 국내 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도구임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을 살펴보면, 첫째 많은 수의 연구대상을 표집하였으나 특정 교육 웹사이트에 가입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질문지 작성에 동의한 부모를 대상으로 메일을 발송하여 연령별, 성별로 각 125명씩 자료를 수집할 계획 하에 선착순으로 자료를 모았기 때문에 응답한 부모들은 응답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참여하지 않은 부모들에 비해 유아 교육과 유아놀이에 관심이 많은 부모일 가능성이 높아 다양한 부모들의 반응이 반영되지 못한 단점이 있다. 둘째, 연구대상 부모들이 서울, 경기도, 인천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보다 광범위한 지역이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폭넓은 지역에서 연구 대상을 표집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는 설문지로 구성되어 사용이 용이하고 경제적인 장점이 있고 유아와 상호작용을 가장 많이 하는 부모가 측정

하기 때문에 교사나 관찰자 평정보다 정확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부모이기 때문에 유아의 행동특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성향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놀이성에 관한 추후 연구에서는 유아에 대한 객관적 관찰이 추가된 관찰자 평정 척도를 개발하여 부모용 평정 척도와 함께 사용한다면 유아의 놀이성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추후 놀이성 관련 연구에서는 부모 뿐 아니라 교사에 의한 놀이성 평정도 함께 실시하여 유아의 놀이성을 판단하는데 부모와 교사 간의 시각 차이를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는 놀이하려는 성향인 놀이성 개념과는 차이 나게 성격적 성향보다 놀이 행동 자체에 초점을 둔 Barnett(1990, 1991)의 ‘아동용 놀이성 척도(CPS)’의 단점을 보완하여 놀이하려는 개인적 성향인 놀이성의 구인을 적절히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는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통해 만 3세에서 만 6세의 유아를 아우르는 부모 평정의 놀이성 척도로서 국내의 유아의 놀이성 및 관련 연구에 활용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Barnett, L. A. (1990). Developmental benefits of play for childre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2(2), 138-153.
- Barnett, L. A. (1991). The playful child : Measurement of a disposition to play. *Play & Culture*, 4, 51-74.
- Barnett, L. A., & Kleiber, D. A. (1982). Comitant of playfulness in early childhood : Cognitive abilities and gender.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1, 115-127.
- Barnett, L. A., & Kleiber, D. A. (1984). Playfulness and the early play environment.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4, 153-164.
- Bateson, G. (1972). Toward a theory of play and fantasy. In G. Bateson(Ed.), *Steps to an ecology of the mind*(pp. 14-20). New York : Bantam.
- Bornstein. M. H., Haynes. O. M., O'Reilly. A. W., & Painter. K. M (1996). Solitary and collaborative pretence play in early childhood : Sources of individual variation in the development of representation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67, 2910-2929.
- Bruegel, P. (1560). the Elder's Kinderspiele, Oil on oak panel, Vienna Museum of Art History.
- Bundy, A. C. (1993). Assessment of play and leisure : Delineation of the problem.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7, 217-222.
- Bundy, A. C. (1997). Play and playfulness : What to look for. In L. D. Parham & L. S. Fazio (Eds.), *Play in occupational therapy for children* (pp. 56-62). St Louis : Mosby.
- Bundy, A. C. (2003). *Test of Playfulness (ToP) Manual, Version 4.0*. School of Occupation and Leisure Science, University of Sydney.
- Bundy, A. C., & Clifton, J. L. (1998). Construct validity of the children's playfulness scale. In M. C. Duncan, G. Chick, & A. Aycock (Eds.), *Play and culture studies Vol. I*.

- Greenwich : Ablex Publishing.
- Bundy, A. C., Nelson, L., Metzger, M., & Bingaman, K. (2001).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est of playfulness. *The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of Research*, 21(4), 276-292.
- Choi, T. S., Choi, M. S., & Cho, M. J. (2008). Development of a scale for playfulness children of elementary school age.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11(4), 35-52.
- Choi, M. S., & Kim, J. H. (2006). The effect of playfulness on the social skills of young children : A study of gender differenc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7(4), 103-116.
- Damast, A. M., Tamis-LeMonda, C. S., & Bornstein, M. H. (1996). Mother-child play : Sequential interactions and the relation between maternal beliefs an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7, 1752-1766.
- Erikson(1972). *Play and development*. New York : Norton.
- Erikson, E. H. (1977). *Toys and reasons : Stages in ritualization of experience*. New York : Norton.
- Fiese, B. H. (1990). Playful relationships : A contextual analysis do mother-toddler interaction and symbolic play. *Child Development*, 61, 1648-1656.
- Glynn, M. A., & Webster, J. (1992). The adult playfulness scale : An initial assessment. *Psychological Reports*, 71, 83-103.
- Huizinga, J. (1955). *Homo Ludens, A study of the play element in culture*. Kim, Y. S. (translation). Seoul : Magpie(Kachi).
- Im, S., Cha, H., & Yoon, H. (2003).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layfulness and the role of parents and teach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7(1), 181-205.
- Jang, Y., & Cho, H.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yle and young children's playfulnes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0(1), 251-268.
- Jin, H. S. (2003).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ToP(Test of Playfulness) : A preliminary study.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19(4), 71-90.
- Jin, H. S., & Lee, S. J. (2009). A study on validity of test of playfulness and on playfulness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25(4), 137-164.
- Kim, Y. H. (2003).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layful children.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5(1), 3-15.
- Kim, W. (2008). A Study on the images of 'play' in Pieter Bruegel the Elder's Kinderspiele (1560). *The Misulshakbo (Review on the Art History)*, 31, 297-334.
- Kim, J. H., & Kim, K. W. (2006). The correlation between playfulness and emotional competence of children,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9(1), 91-105.
- Kim, M. S., & Sung, J. H.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infant's language and pla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3(5), 19-34.
- Lee, Y. S. (2010). The relation between the children's playfulness and self-regulation.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13(4),

- 75-91.
- Lee, Y., Lim, Y., & Oh, K.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creativity, playfulness and multiple intelligence.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9(1), 15-24.
- Lieberman, J. N. (1965). Playfulness and divergent thinking : An investigation of their relationship at the kindergarten level.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07, 219-224.
- Lieberman, J. N. (1977). *Playfulness : Its relationship to imagination and creativity*. New York : Academic.
- Lim, Y. J., & Ahn, H. J. (2008). Children's Playfulness in relation to Peer Competence and Prosocial Behaviors.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4(1), 1-14.
- Park, H. S., & Kim, K. W. (2004). A study on the mother's playfulnes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stress. *Journal of Play Therapy*, 7(1), 13-24.
- Park, S., & Lee, J. (2008).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the playfulness scale for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6(1), 139-152.
- Pellegrini, A. D., & Boyd, B. (1993). The role of play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education : Issues in definition and function. In B. Spodeck. (Eds.), *Handbook of research on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105-121). New York : Macmillan.
- Rogers, C. S., Impara, J. C., Frary, R. B., Harris, T., Meeks, A., Semantic-Lauth, S., & Reynolds, M. R. (1998). Measuring playfulness : Development of the child behaviors inventory of playfulness. In M. C. Duncan, G. Chick, & A. Aycock (Eds.), *Play and culture studies Vol. I*. Greenwich : Ablex Publishing.
- Rogers, C. S., Meeks, A. M., Impara, J. C., & Frary, R. (1987). *Measuring playfulness : Development of the child behaviors inventory of playfulness*. Paper presented at the Southwest Conference on human development, New Orleans, LA.
- Rubin, K. H., Fein, G. G., & Vanderberg, B. (1983). Play. In E. M. Hetheringt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693-774.
- Schaefer, C., & Greenberg, R. (1997). Measurement of playfulness : A neglected therapist variable.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2(6), 21-31.
- Singer, D. G., & Rummo, J. (1973). Ideational creativity and behavioral style in kindergarten-age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8(2), 154-161.
- Truhon, S. (1983). Playfulness, play, and creativity : A path analytic model.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3, 19-28.
-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1989). [http : //www.unicef.or.kr](http://www.unicef.or.kr)
- Woo, S. K. (2008). The effect of gender, temperament, emotional competence and social competence on young children's playfulnes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5(1), 259-280.
- Yoo, A. Y. (1994). *An observational study of teacher's intervention behaviors in children's symbolic pla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Youell, B. (2008). The importance of play and playfulness. *European Journal of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10(2), 121-129.

Yu, Y. E.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playfulnes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3(3), 239-257.

2011년 12월 19일 투고, 2012년 3월 14일 수정
2012년 3월 25일 채택